

막힌 回轉門—엇킨 屍體
火魔가 삼킨 「撤夜고고」는 마치 煉獄

1974. 1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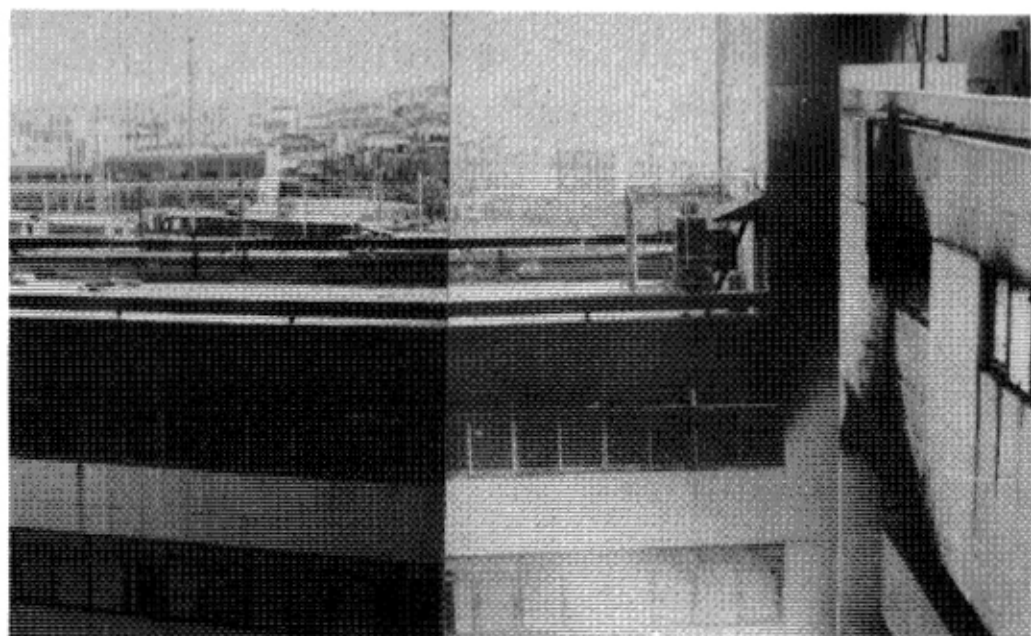
—消防施設은 0點, 大火要因은 고루 갖춰—

死亡 88名, 負傷 23名, 財産被害 8千6百萬원 (動産 不包含)

〈函報高眞 28番 參照〉



6, 7층 계단의 이재모습



건물 전면에서 본 이재층(6, 7층)의 모습



6층 「클럽」 동쪽 창문측의 화재후 모습. 이곳에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 一般事項

建物用途: 複合用途(百貨店, 「호텔」, 「아파트」, 극장, 「카바레」 등 多數用途)

所在地: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火災日時: 1974. 11. 3, 02:42~06:20

發火位置: 6층 中央階段으로 통하는 복도 天井 中央部

火災原因: 電氣合線

● 建物概要

築地 4,900여㎡, 地下 1層, 地上 7層, 延面積 約35,000㎡로 1969. 3月 준공된 철근 「콘크리트」建物. 雜多한 業体가 複雜하게 들어서 있는 典型的인 複合建物로 層別現況은 다음과 같다.

層別	面積(㎡)	用 途
B1	5,378	다방, 목욕탕, 이·미용실, 식품상, 기관실 등 건물고정 시설 등 80개소
1F	5,453	백화점, 다방, 식당, 은행 등 160개 점포
2F	5,339	백화점, 극장, 음식점, 은행, 다방 등 230개 점포
3F	5,128	예식장, 극장, 음식점, 다방, 당구장, 탁구장, 경마장 등
4F	3,861	학원, 극장, 「볼링」장, 탁구장 등
5F	3,640	「아파트」(24세대), 극장
6F	3,647	「호텔」(객실 57개), 극장, 「나이트·클럽」
7F	2,813	「카바레」, 학원, 체육관
옥탑	398	세탁소, 기계실, 물탱크
計	35,679	

消防施設：포말소화기 160개, 분말소화기 50여개, 옥외소화전 1개소, 연결송수관 2개, 자동화재탐지설비 46회로, 구조대 8개, 살수설비(「호텔」쪽 일부), 설치대상인 「스프링클러」設備와 排煙設備는 未設置.

●火災履歷

1972. 8. 5. 1層 분식「센터」에서 「프로판 가스」漏出에 의한 「가스」爆發火災가 發生하여 1~2層 店舖 370여개가 全燒되고 3~7層 一部가 燒失되는 등 13,000여㎡에 이르는 火災被害를 보았다. 被害集計를 보면 財産被害 3억여원, 人命被害 死亡 6名, 負傷 82名에 이르렀었다.

●火災狀況

火災는 02:42시경 深夜에 6層 中央階段으로 통하는 복도의 中央부근에서 發生하였다. 火災當時 5層 「아파트」(27世帯)의 주민 100여명과 6층 「호텔」의 투숙객 30여명은 단잠에 빠져 있었으며 6층 「나이트·클럽」(「고고 클럽」)에는 종업원 20여명, 손님 120여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화재발생 10분전 쯤 「블루스」曲 「離別」을 끝내고 모두 「테이블」로 돌아가 담소하고 있었으며 火災發生直後 정전이 되자(불이 나자 전기실에서 단전시킴) 「키스 타임」이라면서 농담을 주고 받고 있었으며 「테이블」 위의 촛불 조명 속에서 전기가 들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7층 「카바레」에는 前日 23時에 영업을 마치고 종업원 11명이 잠자고 있었다.

화재발생 위치에 隣接한 「호텔」 방에서 投宿客이 뛰쳐나와 「불이야!」 외치는 것을 「호텔·후론트」에 있던 종업원이 발견, 「호텔」 상무에게 알리고 객실문을 두드리며 투숙객들을 깨웠다. 불길은 복도벽과 바닥의 「카펫」를 따라 각 객실과 「나이트·클럽」 쪽으로 연소되어 갔다.

「호텔」 투숙객들은 불이 번지자 유리를 깨고 구조를 요청, 대부분 高架車로 구조되고 일부는 인접 4층옥상으로 뛰어내리거나 「시트」로 끈을 만들어 탈출하여 「호텔」에서 발견된 燒死者는 5명에 不過했다.

그러나 「나이트·클럽」에서는 출입구와 非常口쪽에서 스며든 연기냄새와 “불이야!” 하는 고탈소리가 나자 室内는 순식간에 수라장으로 변했으며, 6층 출입문인 매료소 정문은 통금인 24시경에 잠가 놓았고 정문 이외의 비상구인 「호텔」 쪽으로 통하는 문은 오래 전부터 못으로 폐쇄한 상태였으며 유일한 出口인 正門으로 통하는 回轉門으로 손님들이 몰렸으나 종업원들이 술값을 받기 위해 “술값! 술값!” 하며 가로 막았고 서로 먼저 나가려고 하여 回轉門이 열리지 않아 다시 「홀」 안으로 밀렸다. 뿐만 아니라 외부로 통하는 창문들마저 「밴드」 소리를 외부와 遮斷하기 위해 사방에 설치한 防音壁에 가려 거의 밀폐된 상태여서 出口를 찾지 못한채 갈팡질팡했다. 얼마후 출입문 쪽에 있던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나가 닫혀있던 방범용 「셔터」를 열고 빠져 나가기도 했으며 또 일부 손님들은 창문을 깨고 창가로 나가 때마침 도착한 高架사다리차에 의해 피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소사하였다. (소사자의 대부분이 이 「나이트·클럽」에서 희생된 것으로 화장실에 8명, 창문쪽에 64명이 몰려 소사하여 72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클럽」내에 설치했던 대형 「에어콘」 2대의 「암모니아」가 화재에 의하여 폭발 누출되어 사람

들이 질식되고 이어 불길에 燒死하여 인명피해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報道도 있었다)

한편 북쪽 계단을 통해 7층으로 연소되어 갔는데 7층 「카바레」에서 잠자던 11명의 종업원들은 요란한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보니 이미 연기가 실내에 자욱하여 동료들을 모두 깨워 복도를 따라 중앙 비상계단으로 접근했으나 6층에서 올라오는 연기와 열기 때문에 옥상으로 待避했다가 7층에서 3층 「밭코너」까지 걸려있는 건물정면의 대형 간판을 타고 탈출하여 무사했다. 화재가 계속되는 동안 안전한 피난로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창문으로 뛰어 내리기도 했는데 뛰어내린 사람은 모두 10명이며 그중 6명이 사망하였다.

●消火活動

최초로 화재를 認知했던 「호텔」 종업원이 火災發生場所 근처에서 2개의 소화기로 소화를 試圖했을 뿐 그외의 自体消火活動은 全無했다. 오히려 종업원들은 당황하였고 먼저 빠져나가는 형편이었다. 非常時에 對備한 訓練이 거의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다. 消火設備 亦是 設置狀態나 管理狀態가 不良하여 自動火災探知設備나 「호텔」部分의 연결살수설비도 전혀 작동되지 않았고 옥외소화전 1개마저 열쇠로 잠가놓아 사용하지 못했다.

소방당국이 최초로 화재신고를 받은 시간은 불이난지 6분만인 02:48시경. 인근소방서 소방차 3대가 5분뒤 현장에 도착한데 이어 서울시내 각 소방서의 소방차 61대(펌프차 24대, 물탱크차 26대, 화학차 1대, 고가사다리차 6대, 굴절차 4대), 소방관 241명, 경찰관 150여명, 기동대 103명 등이 동원되어 진화작업을 폈다. 소방당국은 「빌딩」 동쪽 광장과 서쪽 후문 앞에 소방차를 대고 굴절차를 이용 「호스」로 물을 뿌려 진화작업을 펴는 한편 남쪽에서는 고가사다리차를 6층 「클럽」 남쪽 창문가로 올려 인명구조작업을 폈다. 이 사다리를 타고 불길을 피해 6층 창가에 나와 발을 구르던 사람들 중 36명이 구출되었다. 「빌딩」서쪽에서도 「호텔」 투숙객 35명이 불길을 뚫고高架사다리에 의해 생명을 건졌다.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해 당황한 5명의 남자는 「호텔」 창문을 통해 6층아래 서쪽 광장으로, 여자 1명은 남쪽 창을 통해 각각 뛰어내렸으나 모두 현장에서 숨졌다. 이날 불은 6층 「호텔」과 「나이트·클럽」을 전소시키고 7층의 학원을 전소시켰으며 「카바레」를 반소시킨후 화재발생 3시간40분이 지난 06:20시경 진화되었다.

●火災原因

6層 「호텔」 부분의 중앙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복도 천정 중앙부의 20W 조명등 2개가 합선되어 발화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처음에는 천정 「비닐」벽지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하였는데 이불이 복도벽과 바닥의 「카펫」에 옮겨붙었고 복도를 따라 전파되면서 「호텔」 객실문을 통해 각 실마다 불길이 확산되면서 큰 불로 성장하였다.

●被害狀況

人命被害: 死亡 88名(남 49, 여 39명), 重傷 23名
財産被害: 8천6백만원(소실면적 3,366m²)(動産被害 不包含)

